

大學生の學習量 增大方案

盧 宗 熙

(漢陽大 教育學科)

.....
 여러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생의 학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학습 여건을 개
 선하는 일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대학은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채택된 卒業定員制의 실시를 계기로 大衆教育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학의 취학률이 1985년 현재 27%를 상회하고 있어 대학교육의 機會擴大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大衆化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많은 高級人力을 양성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가 단순히 양적 팽창을 가져올 뿐 質的 向上을 수반하지 못한다면, 교육 기회의 확대 그 자체는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 물론 대학교육의 大衆化와 秀越性의 보장은 사실상 병존시키기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大入適格者를 올바르게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교수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시설·설비를 풍부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학의 교육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학의 이념과 목적의 재정립에서부터 교육과정의 구조와 운영, 교수·학습의 방법, 교수의 자세와 태도, 대학교육과 관련된 제도·정책, 교육행·재정, 교육 여건 등에 이르기까지 수월성 추구라는 명제의 연결되어 개선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여러 부분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인정하

면서도 특히 대학 강의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教授-學習의 過程을 통해 산출되어지는 學習의 量과 質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든 지간에 대학교육 활동의 핵심은 결국 '가르치고 배우는' 즉 교수-학습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대학교수가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한 학습 여건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학습 활동과 교수의 수업 활동, 그리고 대학의 교육 여건은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충분치 못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 활동은 졸업정원제의 실시 이후 중도 탈락이 되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간의 경쟁에 힘입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교수-학습의 양적, 질적 수준은 主要先進國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매우 未洽한 상태에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학생들의 學習活動을 지원·조장해 주는 學習與件의 측면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교육 시설, 설비, 教授數가 이에 따르지 못해 대학에서조차 過密學級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의 학습 활동을 도와 주는 데 필수적인 도서관 시설과 장서도 미비하기 그지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이 빈약한 學習與件 아래서 밀도 높은 교수-학습 활동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연유되는 대학교육의 凡庸性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준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대학생의 學習量을 증대시키며, 학습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학

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2. 基本方向 및 課題

대학생의 학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教育課程 운영의 충실화, 教授-學習方法의 효율화, 評價 및 學點管理의 철저, 賞罰體制의 강화, 授業支援體制의 확충 등 다섯 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1) 教育課程 운영의 充實化

대학은 본질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신성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이 어떠한 활동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대학은 '그저 적당히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라는 올바른 인식과 확고한 大學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教育課程 측면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의 철저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 다양한 敎養敎科 개설 및 質 提高

일반적으로 교양과목은 적당히 공부를 해도 학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도 학점이 꽤 많게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처음 대하는 과목이 교양과목이고, 처음 대면하는 교수가 교양과목 담당교수이며, 또 첫 수업이 교양과목 수업이다. 대형 강의실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교수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 아닌 강연을 하는 것이 교양과목 수업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경험도 부족한 젊은 교수, 아니면 時間講師에 맡겨지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대학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大學, 大學敎授, 大學教育에 실망과 허탈감, 심지어 욕구불만까지 느끼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팽팽한 知的 緊張感을 갖지 못한 채 적당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도 교양교육의 不實에

서 그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잘못된 認識과 안일한 學習態度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파행적인 교양교육의 운영으로부터 연유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양교육은 그 課程의 성격상 전공교육과 더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 막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첫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다. 高等學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양교육의 내용과 주입식 강의방법으로는 그들의 知的 욕구를 자극할 수 없음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대학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견디어 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또 1학년 때부터 공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철저한 운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共通教養科目을 최소로 하여 획일성을 지양하고 교양 선택을 많이 개설하여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신축성 있게 부응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속이론, 해방신학 등과 같은 과목들도 대학에 따라 자유롭게 개설·운영하여 이의 올바른 비판 능력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교양과목 담당 교수는 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또는 원로 교수들이 담당하여 단순히 지식 전달로 끝나 버리는 교양교육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을 1~3학년에 걸쳐 적절히 분산시키고 전공과목도 1학년 때부터 일부 부과 운영함으로써 신입생들에게 知的 緊張感과 동시에 充足感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專攻履修學點의 일부 上向 調整

대학교육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教育課程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씩 달라지긴하겠지만, 대학교육은 역시 專攻教育의 量과 質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회가 분화되고 과학 기술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대학에서의 전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결코 낮아질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여기서 교양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1973년도부터 실험대학이 선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졸업 이수학점이 160학

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어들었고 교과이수 구분도 세분화되었다. 졸업학점의 감축과 자유선택학점의 신설은 상대적으로 전공학점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전공학점이 종래의 100~120학점에서 50~60학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다. 전공학점이 많아야 반드시 專攻教育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工大, 法大, 師大 등 분야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학점으로는 전문직을 준비시키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 왔다. 따라서 전공학점은 大學, 學科에 따라 신축성 있게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專攻必須와 專攻選擇간의 학점 배분에도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졸업학점 인가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다만 학생들의 學習量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재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授業과 行事의 二元的 運營

대학에서는 1, 2학기 각 16주 동안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大學行事나 活動 때문에 授業缺損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수업이 침해받아서 안 된다. 대학 행사가 수업보다 우선될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학교 행사나 여타 활동은 정규 授業時間帶를 피해 오후 늦게나 야간에 치를 수도 있고 또 주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사일정에 나와 있는 국경일, 봄방학 등을 제외하고선 쉬는 날 없이 수업은 계속된다. 대학 행사는 주로 주말과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수업과 행사를 완전히 분리시켜 이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막고 수업을 충실히 하는 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2) 教授-學習方法的 效率化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대학에서 교수가 전개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적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교수-학습방법은 전적으로 담당 교수에게 맡겨져 자율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교수가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을 채택 활용하느냐는 학생들의 學習量을 결정하고 또 이들의 학습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수의 授業行動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1) 講義計劃書의 實質的 活用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강의계획서가 작성되어 학생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그러나 강의계획서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하나의 樣式行爲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요식문서로 존재하는 한 강의계획서 작성 그 자체는 쓸모없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담당 과목의 교수-학습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강의계획서가 연구·준비되어야 한다. 또 강의계획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됨으로써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사실상 그 강좌 운영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강의계획서는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강의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의 실질적 활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강의계획서에는 교육목표, 교과내용, 시간 배당, 평가기준 및 방법, 시험시기, 과제를, 참고도서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學習案內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2) 授業參與度의 成績 反映

교수-학습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class participation)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강좌당 학생수가 지금보다 훨씬 축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는 많은 수강 학생들 때문에 교수들은 勞動集約的 說明爲主의 주입식 수업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강의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 일으키기에 미흡하다. 그저 앉아서 강의나 듣고 노트나 하는 수동적인 수강자세와 소극적인 학습태도는 기필코 불식되어야 한다. 강좌당 몇 권의 참고서적을 읽어 내야 하고, 몇 건의 과제도 제출토록 하며, 수업도 예습을 해 온 것을 전제로 參與式 授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퀴즈시험 등을 예

고 없이 실시하여 예습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성적 평가 기준의 하나로 학생들이 장소에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가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좌당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식 수업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학생들도 '받는' 수업에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를 하루아침에 고쳐 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는 學生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3) 課題에 대한 添削指導 및 피이드백 實施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과제는 여러 가지로 敎育的 意味를 가진다. 과제 수행은 자율적이며 탐구적인 학습태도를 길러 줌은 물론이고 논리적 사고력, 조직력, 종합력 등을 배양시키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添削指導와 피이드백이 뒤따라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며 후속적으로 첨삭, 논평, 피이드백이 이루어질 때 이는 비로소 교육적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말시험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과제를 제외하고는 학기중에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첨삭과 논평을 곁들여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학습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과제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수강학생이 많은 경우 과제 처리는 사실상 교수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課題管理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부담과 수업 부담의 경감, 조교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3) 評價 및 學點管理의 절차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평가는 주로 試驗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며 학점 또한 후하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학점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면학풍토의 형

성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評價基準의 多樣化

대체로 대학에서의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평가의 엄정성과 학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다원화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이 어떠한지나 곧바로 학생들의 學習量과 學習態度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 설정과 그 효율적 운용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 기준이 더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의 예습을 촉진하고 평소의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授業參與를 성적에 반영토록 한다. 또 퀴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예습 상태를 확인하고, 비록 적은 비중일지라도 이를 점수화하도록 하여 예습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研究論文(research paper)은 학기초에 부과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연구논문에 대한 피이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기말 3~4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첨삭, 논평, 평가를 한 후 되돌려 주고 우수 논문 몇 편은 발표(present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레포트'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으로 남의 글을 베껴 내는 안이한 학습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레포트가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 평가가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당연한 일이다. 한편 독서카드(reading card)를 4~5매 작성토록 하여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 저널, 국내 전문지 등에 실린 글을 읽고 간단한 요약과 논평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문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알 수 있고 또 비판능력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2) 學問的 正直性의 보장

대학 사회에 있어서 학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문적 정직성(academic honesty)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문적 정직성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 아래서는 공부하는 대학으로서의 건전한 知的 文化的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 현실은 특히 시험 현장에서 학문적 정직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단일 不正行爲(cheating)가 여기 저기서 행해지고 있고, 또 이것이 감독하는 교수들에 의해서 적당히 묵인되고 있다면, 대학의 지적 문화 형성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험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의 크기에 따라 2~3명의 교수(조교 포함)들이 공동으로 감독함으로써 시험 부정행위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부정행위는 근원적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서 이에 상응하는 학점이 나오고 또 이래야만 학점이 신성시되어 대학의 면학풍토는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행위를 다소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상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감독자를 복수로 배치하고, 시험 시작 전에 座席을 제배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學點 寬大化 경향 止場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것은 교수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公正한 학점 부여는 교수에게 부과된 막중한 전문적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른바 학점이 후한 교수 또는 시간강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이 모두 우수해서 좋은 학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가에 있어서 寬大化 傾向(tendency of leniency)이 작용하여 점수를 후하게 주는 수가 적지 않다. 특히, 교양과목이나 교직과목은 자기 전공이 아니라 하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지 않고도 학점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교수도 같은 논리로 학점에 관대해지는 수가 흔히 있다. 심지어는 몇 점만 더 얻으면 B에서 A(또는 F에서 D)가 된다면서 학점을 구걸하여 얻어 내는 학생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취업할 때 자기 학교 졸업생들이 유리하도록 가능하면 점수를 잘 주는 경향마저 있어 학점 인플레이션(grade inflation)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요

건(course requirements)을 명백히 제시하고, 학점 산출의 공정화를 기해 學問의 基準(academic standards)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점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전에 게시·공고하고, 학점에 대한 異議申請을 받아 처리하며, 그 과목을 신청했던 모든 학생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학점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점 산출에 대한 嚴正性과 實務性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賞罰體制의 強化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적절한 質의 統制裝置를 통해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賞罰體制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대학은 들어 오기만 하면 누구나 졸업하고 나갈 수 있는 느슨한 곳이 아니며, 또 그래어도 안 된다.

(1) 成績優秀學生에 대한 褒賞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academic reward)이 수여되어야 한다. 4년간의 총평점으로 최우수 학생들을 선정하여 졸업식에서 표창을 하고 있으나 매 학기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總長(또는 學長)의 표창을 수여하고 이를 대학신문에 실어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美國의 경우 우등생 명단을 Dean's list 또는 President's list 에 올려 발표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또 이를 매우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음은 타산지적으로 삼아도 좋을 성싶다. 가능하면 이러한 표창사항이 成績證明書에도 기재되도록 하여 졸업 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까지도 연결되도록 하면 이것 역시 큰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成績不振學生에 대한 罰則 強化

7·30 조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대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質 統制(quality control)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대학 문만 들어서면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으며 또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벌칙기준을 강화하여 공부하지 않고서는 대학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大學傳統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과 철저하고 엄정한 학점 부여가 필수적인 조건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5) 授業支援體制의 擴充

대학에서 교수-학습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支援體制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는 학생을 자주 강조하지만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교수와 학생들에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여건의 개선에는 많은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해 投資優先順位를 주는 대학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學習量 增大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1) 教授의 勤務條件 改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質은 교수가 어떠한 質의 교육을 제공하느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또 교수들이 얼마나 良質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그들이 어떠한 勤務條件 속에 놓여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교수들의 수업 부담, 학생 부담, 학생 지도, 대외활동 등이 가중될수록 수업 준비와 연구에 투입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4년제 대학의 교수 대 학생의 전국 평균 對比가 1:38로서 매우 과중한 편이며, 더우기 대단위 강의를 맡아야 하는 교수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교수방법을 채택하려 해도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관계로 이의 실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하려 해도 담당 학생수가 많아 체점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助教의 지원이 없는 것도 교수들의 왕성한 교육활동과 연구의욕을 제한하는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교수들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근무 조건은 財政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新任教授 및 外來講師에 대한 學事 案內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사회에서 교수가 수행하는 역할과 책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수가 수업 장면에서 어떠한 학문적 태도와 교수방법을 보이느냐는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아직 대학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신입 교수로서는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소속 대학의 學事運營 전반에 관한 예비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학별로 新任教授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 성적 산출, 학사경고 등 대학 학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숙지시켜 수업에 임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職員資質開發(staff development)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바 巨大한 조직으로서의 대학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교수들이 대학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學事와 관련해서 상세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거의 모든 대학들이 專任教授의 부족으로 외래강사를 많이 쓰고 있음은 公知의 사실이다. 1984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외래강사를 13,963 명이나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는 전임교수의 72.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7명의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가운데 4명은 전임교수이고 3명은 외래교수인 셈이다. 이와 같이 외래강사가 차지하는 量的 比重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또 이들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외래강사의 무책임하고 성실치 못한 강의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學習態度마저 길러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大學當局은 외래강사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學事運營에 관한 자세한 案內와 이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질과 학식을 갖춘 적격자를 선별하여 강사로 위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강사로서의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한다.

(3) 助教의 確保 및 活用

교수-학습방법을 쇄신하고 교육평가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할 때 助教의 支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7·30 조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평가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현실이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조교의 전문적 도움이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미국의 研究助教나 授業助教와 같은 수준의 조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全日制 博士課程 學生을 有給으로 써서 교수들의 연구활동, 교수-학습 및 평가활동을 돕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조교는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자료 수집, 통계 처리, 강의 및 실험 준비, 과제물 수집 및 처리, 시험 감독 및 채점, 학생 논문 지도 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學科의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事務助教와는 자격, 대우, 역할 등에서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4) 圖書館 施設 擴充과 專門圖書의 確保

도서관을 인간의 器官에 비유한다면 마치 심장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대학 도서관으로서 量과 質의 면모를 갖추고 제대로 기능할 때 그 대학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도서관이 대학 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다만 讀書室의 초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학 도서관 현실이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설치기준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좌석수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1984년 현재 110개 대학(교) 가운데 46.4%인 51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同 基準에 명시하고 있는 기준 도서수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1984년 현재 110개 대학(교) 가운데 겨우 10.9%에 해당하는 12개교에 지나지 않고 있다.

2만 가까운 대학인구로서는 중앙도서관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학문 계열별로 몇 개의 도서관을 지어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주어야 할 것이고, 전문사서를 고용하여 교수와 학생의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문도서, 연구잡지, 자료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自學學習을 강조하는 것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한 뿐이다. 또 도서관은 그 기능상 교수와 학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빈 강의시간이면 어느 때고 도서관에 드나들 수 있도록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강의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1~2시간 공백이 생길 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기 십상이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멀리할 때 대학사회는 황폐해지고 만다.

특히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대학 도서관이 좌석이나 제공하는 독서실의 기능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급속하게 생산되는 최신 정보를 교수와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고,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쉬, 컴퓨터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도서관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학당국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5) 新入生 및 學父母에 대한 學事 案内

일반적으로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된다. 이때 졸업정원 조정에 의한 각 학년 진급, 이수학점 및 초과 이수 학점, 성적 산출 기준, 성적 평가, 학점 등급 및 평점, 출석, 휴학, 학사경고, 유급, 제적, 우등생 표창 등 學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學則條項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학사 안내는 대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學科 중심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用語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는 신입생들로 하여금 학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학사에 관한 학칙이 대학 요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신입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안내와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학칙 조항을 읽어 주거나 집에 가서 읽어 보라고 할 것

이 아니라 이해하기 좋게 재정리하여 2~3 페이지 유인물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교육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 학부모들에게도 學業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家庭通信을 통해 알려 줌으로써 자기 자녀의 학업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예컨대, 과목 낙제, 학사경고, 유급, 제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은 벌칙을 받게 되는지를 학부모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며 또 대학과 가정과의 연계체제가 원활할 때 학생들의 學業指導는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6) 大學成績을 重視하는 社會風土 조성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여 학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측의 제반 노력과 병행하여 사회로부터의 협조도 반드시 요청된다. 우선 大學成績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僱傭慣行이 전환되어야 한다. 점차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시즌이 되면 우수한 회사에서 채용시험이 치러지고 또 이러한 취직시험은 대학생들에게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學科 공부는 졸업장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취직시험 준비에 더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힘들여 취득한 학점이 사회에서는 그저 無力한 등급에 지나지 않고 있어 학생들에게 있어 학과 공부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대학교육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大學卒業狀과 筆記試驗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成績證明書와 면접시험이 더 큰 몫을 해야 할 것이다. 성적증명서는 그 학생이 무슨 과목을 이수했으며 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축약된 大學生活史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서까지 곁들인다면 더 정확한 인물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더 비중 있게 따져지는 쪽으로 사회풍토가 조성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두터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성적증명서의 對外 公信力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회로부터 이의 활용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3. 맺는 말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생의 학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수와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업 부담과 학

생지도 부담이 과중하고 실험실습 기구와 설비가 부족하며 도서관 시설과 장서가 빈약한 대학 환경 속에서는 일차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교육 그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한낱 공염불로 끝나기 쉬운 것도 이러한 교육 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재정 투자 없이 빈약한 교육 여건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함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값싼’ 교육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선진 제국의 대학과 경쟁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겠고, 또 학문적 수월성을 중시하는 대학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教育箴言〉

휘종황제(徽宗皇帝)가 이렇게 말했다.

“배운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썩과 같다. 벼와 같음이며, 나라의 좋은 양식이요 세상의 큰 보배로다. 썩과 같음이며, 밟가는 이가 싫어하고 김매는 이가 귀찮아하는도다. 후일에 담을 마주한 것 같음에 후회한들 이미 늦었도다.”

“徽宗皇帝曰 學者 如禾如稻 不學者 如蒿如草。
如禾如稻兮 國之精糧 世之大寶。如蒿如草兮
耕者憎嫌 鋤者煩惱。他日面牆 悔之已老。”

〈明心寶鑑, 勤學篇〉